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11)

제주·일본 제2차 해외 비교취재 ⑤에필로그
제주는 태평양전쟁 군사시설 축소판

입력 : 2008. 07.31. 00:00:00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대 전경. 미군 등 연합군의 공격으로 부터 비행기를 감춰 두기 위한 격납고 20기가 산재해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lee@hallailbo.co.kr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1941년 12월~1945년 8월)은 우리나라를 비롯 아시아 각국에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은 종전을 고했지만 전쟁의 여운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패전 60년이 지났으면서도 과거 침략의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커녕 틈만 나면 노골적인 도발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독도영유권을 강변하는가 하면 역사교과서 왜곡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제주도에 남겨진 태평양전쟁 관련 군사시설은 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행한 일본의 침략전쟁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이다. 즉 일본의 침략상을 입증해주는 살아있는 역사현장인 것이다.

제주도의 태평양전쟁 관련 군사시설은 다양하면서도 집적도가 높고, 대규모로 남아있다는 점에서 중요성과 보존가치가 크다. 특히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는 야외전쟁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뜨르비행장 일대는 당시 활주로와 격납고 20기, 고사포진지 4기, 통신시설 등 다양한 지하병커 20여개 등이 남아있다.

이같은 군사시설의 다양성과 규모는 취재팀이 이번에 찾은 일본 현지의 고치(高知)해군항공대, 우사(宇佐)해군항공대, 마츠야마(松山)항공기지를 압도하고도 남는다. 우사해군항공대에 현재 남아있는 격납고는 10기로 알뜨르비행장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제주도 해안에 남겨진 특공기지와 송악산 알오름을 비롯 오름 등지에 구축된 지하진지 등도 일본토와는 차별성을 지닌 전쟁유적이다. 일본측 학자나 전문가들도 일본 현지보다 제주도에 당시 군사시설이 잘 남아있다면 세계 전쟁유적의 필드로써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주도가 나서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일대 군사시설을 중심으로는 현재 정비 보존

활용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또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동굴진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통해 역사적 성격 규명 등에 나서고 있다.



▲제주자치도가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일대 격납고를 활용한 평화의 광장 투시도.평화를 상징하는 야외광장인 이곳에서는 주변 격납고를 배경으로 평화관련 다양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일본 시코쿠섬 고치 해군항공대 격납고. 격납고 훼손·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정면 날개부분을 철재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기본계획은 알뜨르비행장과 그 주변의 태평양

전쟁 관련 군사시설을 정비 보존 및 평화의 섬을 상징하는 역사문화현장으로 가꿔나간다는 게 골간이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가 오는 2017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계획을 보면 비행기 격납고는 원형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당시 유도를 복원 체험케 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알오름의 동굴진지 등도 비행장 활주로와 격납고 등을 연계 관람할 수 있도록 내부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대규모 시설을 도입하고 관광위주의 활용방안만 내세울 경우 역사적 의미라든가 보존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원지형과 원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는 태평양전쟁 관련 군사시설의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그만큼 제주도의 일제 군사시설은 단순히 식민지시대의 잔재가 아니라 태평양전쟁의 실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세계전쟁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이를 염두에 둔 정비 보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알뜨르비행장 일대 정비계획이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 포커스](가칭)평화대공원 어떻게 추진되나

2017년까지 총 750억 투자...부지·재원확보 등 현안 산적

제주도가 추진중인 (가칭)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기본계획은 오는 2017년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있다. 주요 골자를 보면 2008년부터 오는 2017년까지 9년간 4단계로 구분 총 사업비 약 7백48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알뜨르비행장 일대 1백84만여㎡의 면적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은 ▷ 평화보존전시 영역 ▷ 평화기념광장 영역 ▷ 평화메시지 영역 ▷ 평화보존활용 영역 ▷ 청소년수련시설 영역 등으로 설정, 정비 보존 및 활용계획을 가다듬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1단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로 사업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에서는 각종 설계 및 부지매입이 이뤄진다.

이어 2단계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로 성숙단계로 설정, 동굴진지 복원과 기반시설 공사등을 시행, 송악산 지하호 동굴진지 부분은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3단계는 2012년부터 2015년으로 완성단계에, 4단계는 2016년부터 2017년으로 사업완료단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원부지 91.3%가 국방부 소유로 돼 있어 부지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다. 또한 투자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도비로만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국책사업화를 통한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